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구영민 /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oo Young-Min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용인하는 배금의 상혼, 아무 구석이나 병풍 세우고 아무벽이나 족자 거는 졸부의 취향… 이들의 집짓기, 글쓰기 그리고 마음쓰기의 모든 모토는〈주변은 돌보지 않는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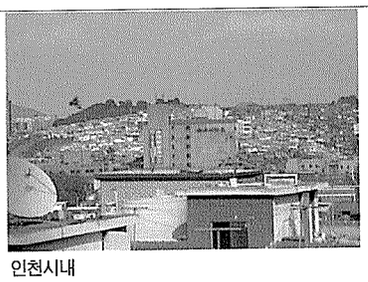
- 김영민의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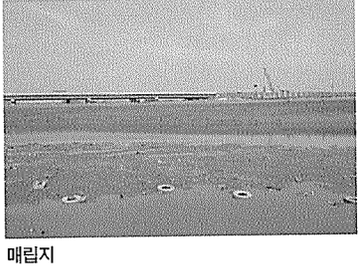
최근 인천은 옹진, 강화군을 포함한 경기 일부 지역을 편입시키며 광역시로 새출발을 했다. 대단하게는 서해의 관문, 작게는 서울의 위성도시 쯤으로 여겨졌던 과거의 인천은 광역이라는 접두사를 달고 총 138여개의 유 · 무인도를 포함하는 가장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가진 최대의 도시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라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서면 곧 크고 작은 공장들과 아파트, 연립주택들의 산만한 전개로 인하여 새로운 광역도시에 진입한다는 느낌에 앞서 서울의 언저리쯤에 도달한 느낌을 받게된다. 경계의 소멸, 중심의 부재, 입구와 출구의 불확정성 등으로 인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천이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게된다. 더구나 인천은 분명 항구도시인데 다가갈 수 있는 바다가 없다. 다만 올림포스 호텔이나 자유공원 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와 배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바다가 육지라면…'을 부르던 시절에는 님을 그리워하는 애타는 심정이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 바다가 무슨 원수라도 되는 듯이 도처에서 메우고 막고 덮는 통에 그리움에 대한 낭만은 없어진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제와 광역도시의 환상은 그야말로 인천의 구석구석을 뒤엎어 놓고 있다. 멀쩡한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신도시 개발에 열중이다. 인천 향토사의 젖줄이었던 문학산 줄기의 한 쪽 끝이 붕괴되는가하면 진짜 때려부수고 싶을 정도로 눈에 익은 고층 아파트들로 가려지고 있는데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계몽과 수탈,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개발의 독재에 늘 수동적인 대상[1]이었던 우리네 형편에서는 눈을 들어 먼 산과 바다를 바라다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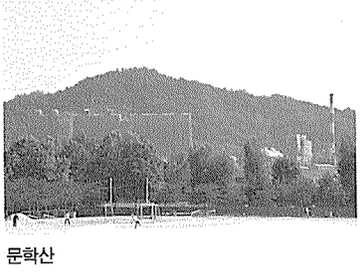
행정가들이 지방자치를 한답시고 벌여놓은 일들을 열거하자면 한심하다 못해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어느 지방 도시를 가든 명당자리엔 우스울 정도로 비대한 규모의 신청사가 들어가 있다. 문화회관,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은 이제 지방자치제의 문화(文禍)단골 메뉴로 등장하였다. 중앙집권 지배체제에서 지방토호세력의 위용을 과시하는 화강암덩어리들이 우리네 지방자치제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내일 일도 감당치 못하면서 그 놈의 '백년대계'를 열심히 외쳐대는 걸 보면, 그래도 앞날이 두려운 것일 게다. 100개의 공장보다는 천년을 내려온 개펄이, 스타디움보다는 철따라 색이 변하는 산이 백년대계라는 상식은 현란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논리와 추세에 압도되어 말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새술은 새포대에'라는 상황적인 경구를 교리로 부상시켜 시민들을 쇄뇌하고 거대도시 구상과 함께 역사와의 단절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일획을 긋겠다'는 신념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자칫 우리는 정체성 회복의 시기에 정체성 상실이라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도시를 다녀온 거개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왜이래?' 하고 푸념을 늘어 놓는 것은 외국에서 보았던 근사한 건물들에 대한 부러움때문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도시언어를 통하여 형성된 컨텍스트에서 풍기는 그 도시들만의 정체성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인천과 같이 이구석 저구석을 찢어내면서 성장해온 도시에서 일정한 흐름을 타고 온전히 이어져 온 인천성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 말할

1)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p. 112


인천시내


매립지


문학산

때 사람들은 흔히 시각적인 다름으로부터 오는 특정 도시의 모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배경과 함께 그 속에 배어 있는 정신적인 줄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또다른 무엇이다. 그러나 무어란 말이냐? 혼돈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간의 질서인 것이다."

- 로버트 벤츄리 「라스베가스의 교훈」 -

콜린 로우(Collin Rowe)는 도시를 '기억의 극장'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인간의 열망과 좌절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기록이 쌓여 있는 장소로서의 도시를 의미하고 있으며 과거와 영원성의 초시간적이며 동시적인 현존을 뜻하는 말이다. 인천은 특히 개항으로부터 연장된 근대도시로의 발전을 담고 있는 한 편의 기록영화를 연상시킨다. 또한 로우는 「꼴라주 시티(Collage City)」에서 맥락주의(Contextualism)나 충돌의 도시(Collision City)와 같은 이론들을 성립하였는데, 이는 인천을 좀 더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란 심리문화적 배경(Psycho-cultural field)으로서 모든 종류의 맥락에 가치를 두고 포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맥락주의는 장소와 문화의 독특함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이론으로서 근대건축과 도시의 억측된 보편성을 견제하며 획일화된 양상에 저항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내의 충돌(그리드의 충돌, 시간적 충돌의 의미)은 개발의 독재가 횡행하였던 근대도시라면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주로 미개발지역이나 수변 또는 주요 조경지역과 결속할 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돌(Collision)의 문제점이 도시내부에 위계성과 중심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도시의 맥락을 훌륭한 구성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리네 도시의 모습이 어눌함과 즉흥성, 그리고 덜 성숙된 조형들이 이루는 불안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과거와 항구 도시의 흔적을 통한 인천만의 아우라가 있을 법하다.

근대화와 근대건축이 미국의 도시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실을 폭로하였던 제인 제콥스(Jane Jacobs)의 비관 속에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풍토적 친근함과 존속 가능한 이웃에 대한 애정이 서려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벤츄리(Robert Venturi)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기존하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통념적인 것을 사용하여 비통념적인 것으로 만드는 현명함으로, 20세기말 도시인천이 처한 현실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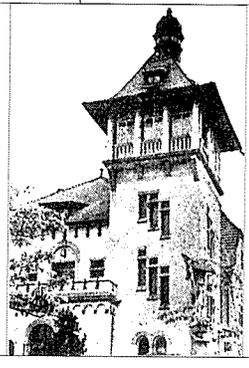
"아, 나는 깨어있는가. 아니, 꿈은 아니겠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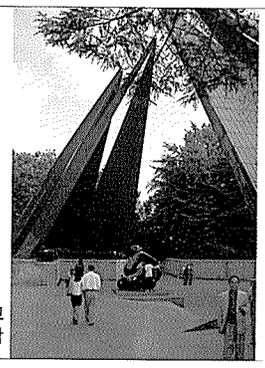
- 「리어왕」1막4장 -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인천은 오히려 일정시대가 항구도시다운 아름다움이 있었다고들 말한다. 그들의 말은 인천이 일제문화의 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천의 개항과 더불어 형성된 지역문화, 즉 인천의 각국지계(各國地界)가 어우러진 자유공원 기슭과 바다, 그리고 월미도를 연결하여 보존되었던 시대를 통틀어 일컫는 것일게다. 사실 얼마되지 않은 과거에 인천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거의가 인천 곳곳에 서있는 양관들의 모습에서 조금은 이국의 정취를 느꼈으며 낭만적인 멋에 젖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양의 미항에는 이를 수 없을 지라도 가까운 홍콩이나 일본의 요코하마 정도의 이그조틱한 멋이라도 있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 그나마 몇 안되는 양관들은 여관으로 바뀌고, 전설의 존스톤별장은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라는 흉칙한 추상화로 둔갑되어 버렸다.

파괴의 신 시바를 숭배하는 인도인들처럼, 인류는 파괴를 통해 창조를 예비하는 것일까? 세기말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서 지역성을 획득하는 방편으로 권력자들은 '비전'이라는 도구를 손쉽게 사용한다. 정체성 혼란은 미래시제와 연결될 때 오히려 창조적일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정체성 찾기는 과거시제인 경우가 많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감정과 사고능력을 지닌 복제인간과 인간을

인천바다와 도시


존스톤 별장의 모습


한 · 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구분짓는 것은 기억인 것처럼, 「토탈리콜」의 크웨이드가 미지의 과거를 캐며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처럼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과거가 연관된 현재에 더 밀접하다.

인천을 과거의 수려했던 항구도시로, 비릿한 바다냄새가 실려오는 염전의 한가로운 풍경으로 대입시키려하는 것은 개발의 빠른 발걸음에 지친 시민들의 무의식적 균형잡기인 것이다. 이렇게 과거를 쫓는 정체성은 역사와 마주친다.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천은 근대화, 전쟁, 개항, 조선, 고려 및 삼국시대, 미추홀의 백제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특히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천부 군명조에서 시대순으로 열거해 놓은 인천의 옛이름들을 살펴보아도 인천의 역사는 족히 2천여년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비류 백제의 미추홀(彌鄒忽)에서 고구려때의 매소홀(買召忽), 신라 경덕왕때의 소성(邵城), 고려때와서 일명 경원(慶源) 또는 인주(仁州)라고 불리운다. 조선 영조때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미추홀의 구체적 소재지는 지금의 남구 문학산성으로서 초반부에서 언급하였던 한줄기가 사라진 문학산의 정상이었다. 또한 인천 도서지역에 널려 있는 각종 문화유적은 우리의 관심을 선사시대 이전으로 끌어 올린다. 특히 인천 신공항이 건설되는 영종 · 용유지역(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등)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서 최근에 이르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은 서해바다와의 인연때문에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또는 외세침략의 전략적인 기지로서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부여받은셈이다. 즉, '인천에는 중심공간이 없다' 라는 문제제기는 '다양한 중심공간의 혼재' 라는 이중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천의 풍토적 도시풍경은 크게 식민지풍의 건물군이 집결해 있는 자유공원 기슭(Colonial Vernacular), 탈산업시대의 유물로서 남아있는 오래된 공장과 창고군(Industrial Vernacular), 그 위를 덮쳐가고 있는 소비문화의 경관(Commercial Vernacular)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소적으로는 신포동과 자유공원 기슭의 조계지(租界地), 경인고속국도 주변으로 난립해 있는 크고 작은 공장과 인천 제2부두와 월미도입구 주변에 이끼처럼 연결되어 있는 미곡 창고군과 사일로 건물들, 그리고 송도와 신포동, 주안역을 중심으로 산개하는 입고, 먹고, 놀자의 현란한 간판골목들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도시의 인조물들이 조닝이라는 구색에 맞춰 조율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계몽주의적 타성에 젖은 근대 계획가의 눈에는 혼돈이나 폐허 그 자체이다. 그러나 '중심들의 혼재' 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인천은 더없이 훌륭한 기록영화이다.

"…사실 도시에서는 어느 단일한 요소가 중심이 될 수 없다. 혼합이야말로 중심이 되는 요소이며 그 안에서의 상호 보완은 질서이다…"

- Camillo Sitte 「예술적 원리에 의거한 도시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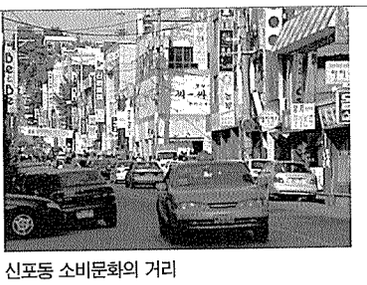
동인천역으로부터 자유공원으로 연결되는 언덕길과 그 사이로 시선을 던져 바라 볼 수 있는 인천 앞바다, 그리고 산업사회를 지탱하였던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갖가지 도시의 인조물들(Urban Artifacts), 빼곡히 어우러져 골목길을 형성하며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간 외국초개지가 던져주는 시간과 스케일의 친숙한 감각들이 원경과 중경, 그리고 근경이 중첩되는 시각의 흐름 속에서 부조화음의 인천 도시역사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월미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자유공원은 동인천으로부터 답동, 신포동 기슭 어디서든지 진입이 가능하다. 구도심의 위치성으로 볼 때 이 곳의 정상은 도시의 테라스(Urban Terrace)이다. 그곳으로부터 바라다 보이는 사면을 통하여 인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케일을 일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먼저 월미도쪽으로 형성되어 간 산업철도와 제분소, 그리고 싸일로의 거대함과 역동적으로 흘러내리는 경사진 운반로, 거대한 공장 담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며 마주치는 월미도 앞바다와 월미산의 허리, 또한 눈앞에 펼쳐진 수백개의 거대한 크레인과 화물선의 사열 등 모든 것들이 혼재해 있는 모습에서 항구도시의 거센 과거를 읽을 수 있다.

자유공원의 등고선을 따라 내려오면 각국지계

자유공원 정상에서 내려다 본 인천바다와 월미도 주변

신포동 소비문화의 거리



신포동 소비문화의 거리

의 주거, 공공시설, 상업지역의 순서를 읽을 수 있는데 마치 나이테와 같이 안에서 밖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현대라는 시간과 만나고 있다. 일본지계, 중국지계에는 양관들을 흉내내기하다가 인천의 풍토와 혼합되어 만들어진 혼종의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이국적이면서고 인천적인 난해한 스케일감을 제공한다. 이들 혼종의 건물들은 현재 신포동의 소비문화 가면을 쓰고 4~5층 정도의 균형잡힌 높이의 건물들에 의해 신작로 뒷켠으로 물러나 있다. 정리된 중앙로 변의 근대건물 뒤로 미로와 같은 구거리들이 켜를 이루며 숨어들어간 모습에서 역사의 단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달리면서 경험하는 기계적인 풍경이나 열악한 공장지붕들, 그리고 간판들이 담고 있는 산업적 풍토성(Industrial Vernacular)을 뒤로하고 자유공원으로 이르는 역사의 등고선을 오르면서 서해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인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록영화속의 도보여행이다. 더 멀게는 문학산, 청량산 그리고 낙조를 배경으로 흐느적거리는 도시 지평선과 공장의 굴뚝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인천의 도시경관은 현대의 신화이다. 이러한 신화적인 공간 속에서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한편의 몽타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천인 것이다.

1995년 이후 송도는 인천의 정체성 혼란을 21세기 미래시제로 연결시켜주는 결절지가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미디어파크,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미디어아카데미, 소프트웨어파크 등 알 수 없는 기능들을 수용하는 송도미디어밸리의 비젼을 제시하였다. 언젠가부터 엄청난 면적의 바다를 메우더니 인천신공항의 꿈과 함께 송도매립지가 생겨났고 문학산 한구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인 미추홀, 그리고 지금은 한 아파트 단지내의 놀이터로 재생되었지만, 과거 대중(對中)해상통로라는 교역의 결절지였던 능허대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쉽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척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발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송도의 이미지는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개장된 송도 유원지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한다. 송도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았던 70년대까지는 그래도 '소나무 숲이 있는 바다'라는 낭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송도는 향락과 소비문화의 숲으로 변모해버렸다. 청량산을 배경으로 서해의 낙조를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언덕배기에는 상업광고의 경관이 눈을 가득 메우고 있다. 관광이라는 전통을 위한 소비가 아닌, 소비를 위한 저질 소비공간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졸속한 시행정, 무분별한 천민자본주의가 남긴 상처로 간주하는 비판의 눈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막위에 펼쳐진 라스베가스의 휘황찬란한 광고판과 건축물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장소 확인의 매개체로서 부각시킨 벤츄리의 용의주도함을 인용해보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다. 이제 송도의 밤을 지배하는 원색의 상업광고 네온들은 장소적 도시공간을 인식하게 해주는 새로운 잣대로 소개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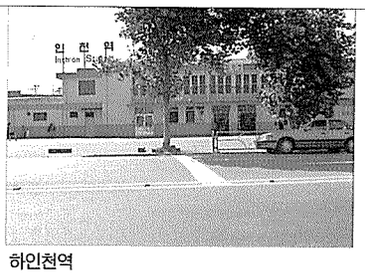
자유공원에서 바라보았던 공장과 창고건물들처럼, 소비를 위한 국적불명의 건물과 광고판들도 '건축가없는 건축'으로서의 자태를 찾아가면서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전용소비공간의 전통을 재창조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어떻게 근대화하면서 또 그 원천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가? 또 과거의 숨겨진 문명을 발굴하여 세계문명에 동참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바로 역설이다."

- Paul Ricoeur, 「역사와 진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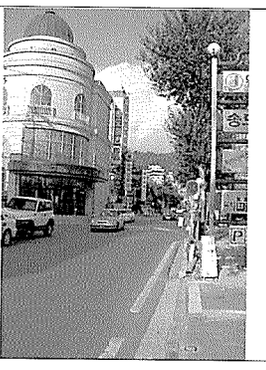
'그래도 인천에서 가볼 만한 곳'을 묻는다면 대개의 인천사람들은 서해의 낙조를 관망할 수 있는 청량산 중턱의 한 까페를 필두로 하여, 소래포구, 연안부두와 수산물 공판장, 부평 깡시장(전통 야채 및 농산물 야시장)등 서해와 낙조에 관련된 풍경이나 문화를 들이댄다. 심지어 어떤이는 한화에너지 단지가 있는 율도에서 느끼는 척박한 소외감까지도 인천만의 감흥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130여개의 섬들을 향한 서해의 뱃길과 광역화되면서 행정 편입된 강화도의 역사관광자원에 대한 얘기는 생소한 편이다.

알다시피 강화에는 문화유적과 역사의 현장이 풍부하다. 석기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굵직굵직한 정치외교적 사건들-고려 도읍



하인천역

인천 제2부두앞 창고군(倉庫群)


송도 소비문화의 공간

천도, 병자호란, 강화도조약으로 불리우는 병자수호조약등을 치루어 낸 현장들과 함께 아직도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작은 포구와 어촌의 풍경들이 살아 있다. 또한 마니산의 참성단과 같은 단군신왕과 관련된 유적들이 있어서 민족종교의 성지로 꼽히는가 하면, 성공회 강화성당을 비롯하여 개화초기의 선교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강화성당 및 개신교교회등이 남아 있어서 강화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근대화의 길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이 강화를 얘기하면서부터 인천의 문화지도(地圖)는 개국으로부터 개항에 이르는 참으로 긴 시간을 기록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인천의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다시 말하면 강화로부터 인천항에 다다르는 역사의 탐방이야말로 인천성을 획득하는 첫 번째 순서가 될 것이다. 앞서 묘사하였던 불연속의 도시 모습속에서 역사의 리듬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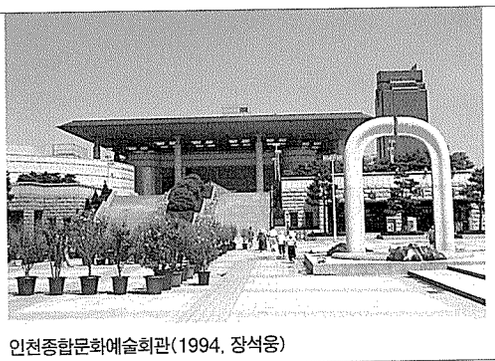
"정체성이 실천으로 파악될 때 비로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이때 정체성이란 실천결과에 붙이는 이름이다."
- 알튀세르 -

오늘날 개발과 보존의 대립적 구상에서 개발의 논리가 독재화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라는 행정적 도구를 무기화하여 다시금 '증산, 수출, 개발'의 국풍을 세워 놓고 인천의 지형도를 변화시키려는 술책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인천시민이 다 떠나고 나서 국제공항이니, 초고층 건물이니, 미디어밸리 따위만 남은 인천을 시장이 혼자서 지키겠다는 말인가? 소위 인천 토박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인천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이 '인천사람의 부재'다. 적극적인 애향심을 가지고 인천의 운명과 같이할 인천인의 정체성 부재라는 얘기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라는 행정적인 배려는 계몽적 근대화의 속도에서 인간중심의 속도로 바꿔가자는 내막이 더 깊다. 인천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인천이 어디냐?' 라는 반문을 할 때 정체성은 타자 속에서 타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는 라캉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즉, 지방자치제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는 또 다시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공장이나 유치하고 컨벤션센터나 짓자는 얘기-외발적(外發的) 개발-에서 지역 내의 소재를 발굴하여 활용하자는 얘기-내발적(內發的)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인천의 골목과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개항직후의 근대 건축물, 흐르는 역사의 리듬, 바다와 개펄의 포근함 등,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동인천에서 자유공원을 넘어 열린 바다로 연결되는 한국적 풍토의 수변도시계획, 버려진 벽돌창고군을 재생한 수변 문화공간계획, 하인천역으로부터 월미도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을 통하여 실감하는 산업화현장 견학, 또다시 130여개의 섬들로 이어지는 뱃길을 개발하여 만든 바다체험 실습장, 해안도로의 친수(親水)적 재개발, 문학산 미추홀 성지의 부활 등 진정한 개발의 과제가 산재해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천의 특성을 보여주는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 등의 시설이 절대부족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기념하는 철도박물관, 인천미술관, 염전박물관, 선박박물관, 해양박물관 등의 계획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립박물관이니 예술의전당이니 하는 것들 처럼 거창하지 않을수록 좋다. 각국지계에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재활용해보는 것도 좋고, 부둣가의 벽돌창고군(群)을 재생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 도시탐방을 통한 지역성에 관한 논의는 장소성의 회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장소성의 회복은 고유한 양식과 전통에 입각한 지역주의 건축을 통한 또다른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성의 성찰을 지향함을 알 수 있었다. 프램프톤은 지역주의를 장소성에 토대를 둔 개방적이고도 포괄적인 건축태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천성의 회복은 건축가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문화영역에서의 균형잡힌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미디어 밸리' 등과 같은 전체주의적 환상에 의해서 보다는, '인천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잠재적 가능성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인천시립박물관(1991, 임장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1994, 장석웅)